

나달, 프랑스오픈 11번째 정상 등극

이번은 없었다. 클레이코트의 황제 라파엘 나달(32·스페인·세계랭킹 1위)이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정상에 등극했다.

나달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8위 도미트크 팀(25·오스트리아)을 3-0(6-4 6-3 6-2)으로 완파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하며 특정 메이저대회 단식 최다 우승 기록(10회)을 쓴 나달은 2년 연속 이 대회 우승을 일구며 프랑스오픈에서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개인 통산 17번째(호주오픈 1회·프랑스오픈 11회·윔블던 2회·US오픈 3회)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나달은 로저 페더러(37·스위스·2위)가 보유하고 있는 메이저대회 최다 우승 기록(20회)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이번 대결은 신구 클레이코트 강자의 대결로 주목받았다.

나달은 프랑스오픈 통산 전적에서 86승 2패를 거둬 97.7%라는 엄청난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까지 포함해 클레이코트에서 통산 415승 36패, 승률 92%를 기록했다. 최근 2년간 클레이코트에서도 50승 2패로 맹위를 떨쳤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나달에 2패를 안긴

선수가 팀이다. 팀은 지난해 로마 마스터스 8강에서 나달을 2-0(6-4 6-3)으로 물리쳤고, 올해 마드리드 오픈 8강에서도 나달에 2-0(7-5 6-3)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 때문에 팀은 나달의 11번째 우승을 저지할 강력한 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나달은 가볍게 팀을 물리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도미트크 팀을 3-0 완파 신구 클레이코트 강자 대결로 주목받아

1세트 게임 스코어 4-4로 맞선 상황에서 자신의 서브게임을 잘 지킨 나달은 팀의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해 1세트를 가져왔다.

나달은 2세트 게임 스코어 1-0에서 팀의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하며 흐름을 가져왔고, 자신의 서브게임을 잘 지키면서 2세트까지 가져왔다. 기세를 몰아 3세트를 가볍게 수확해 승리를 확정했다.

2016, 2017년 이 대회 준결승까지 오르기도 결승 문턱에서 좌절할 팀은 세 번째 도전 만에 생애 첫 메이저대회 결승 진출에 성공했지만, '휴신'을 넘는 데는 실패했다. /뉴시스



라파엘 나달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도미트크 팀을 꺾고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



이상수·정영식, 탁구 일본오픈 우승

이상수(28·국군체육부대)·정영식(26·미래에셋대우) 조가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일본오픈 남자복식에서 세계 최강 중국을 물리쳤다.

이상수·정영식 조는 10일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일본오픈에서 리앙징룬·저우카이 조를 3-1(11-6 5-11 11-9 11-5)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일본오픈에서는 중국의 예이스 조인 쉬신, 관젠둥은 출전하지 않았지만 차기 중국 예이스 조를 물리쳤다. 이상수와 정영식은 8월 열리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 전망을 더욱 밝게 했다.

이상수는 이효주와 짝을 이룬 혼합 복식과 남자 단식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한편, 한국 남녀 탁구대표팀은 13일부터 인천선수촌에서 국내 훈련을 시작한다. 국내 대회 및 2018 코리아오픈(7월 17~22일 대전 충무체육관) 등을 통해 아시안게임 준비에 매진할 예정이다. /뉴시스



박지수, 美여자프로농구 데뷔 후 한경기내 11리바운드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에서 뛰고 있는 박지수(20·196cm)가 미국 데뷔 후 한 경기 최다 리바운드를 잡았다.

박지수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토킹 스틱 리조트 아레나에서 벌어진 피닉스 머큐리와 2018 WNBA 정규리그 경기에 출장. 21분 30초 동안 4점 11리바운드 1어시스트 1스틸을 기록했다.

11리바운드는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리바운드 기록이다. 두 자릿수 리바운드도 처음이다.

WNBA 데뷔 시즌을 치르고 있는 박지수는 8경기에서 평균 2.4점 3.6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팀은 66-72로 패했다. 4연패 후 개막 첫 승을 거뒀지만 다시 3연패 늪에 빠졌다. 1승7패다. 라스베이거스는 13일 인디애나 피버블 상대로 연패 탈출에 도전한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재미동포 애니박, LPGA 숄라이트 클래식 우승

재미동포 애니 박(23·박보선)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숄라이트 클래식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애니 박은 11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캘러웨이의 스타턴 시류 호텔 & 골프클럽(파 71)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 버디 6개를 쳐 8언더파 63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6언더파 197타를 기록한 애니 박은 일본의 요코미네 사쿠리(15언더파 198타)를 1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LPGA 투어 개인 통산 첫 승의 감격을 누렸다. 우승상금으로 26만12500달러(약 2억8000만원)를 받는다.

한편, 전인지(24)는 10언더파 203타로 공동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단체)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층 맞춤형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건 지식보급	5,733,677,999
...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9

홍보대사 류수영